

사설

##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이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주체 107(2018)년 신년사를 받아안은 우리 겨레의 가슴가슴은 지금 무한한 환희와 격동으로 끓어 번지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역사적인 신년사에서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북남사이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 환경부터 마련할 때 대한 문제, 민족적 화해와 통일을 지향해나가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할 때 대한 문제, 북파 남의 당국이 그 어느 때보다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시대와 민족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때 북남관계대전환방침을 제시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민족적 대사들을 성실히 치르고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내외에 떨치기 위해서도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북남관계, 조국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천명하신 강령적 가르침은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절박한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다면 어느 누구도 민족앞에 멋진 모습으로 나설 수 없다.

새해는 공화국이 자기의 창건 일흔돐을 대경사로 기념하게 되고 남조선에서는 겨울철 올림픽경기대회가 열리는 것으로 하여 북파 남에 다같이 의의 있는 해이다. 북파 남은 민족적 대사들을 성실히 치르고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내외에 떨치기 위해서도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여야 한다.

무엇보다 북남사이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 환경부터 마련하여 전쟁도발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의 정세는 류례없이 악화되고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보다 엄중한 난관과 장애가 조성되었다.

남조선에서 분노한 각계각층 인민들의 대중적 항쟁에 의하여 파쑈통치와 동족대결에 매달리던 보수 『정권』이 무너지고 집권세력이 바뀌었으나 북남관계에서 달라진 것이란 아무 것도 없다. 오히려 남조선당국

를 수호하시려는 그이의 확고한 평화애호리념과 뜨거운 민족애가 맥동치고 있다. 또한 북과 남에 다같이 의의 있는 올해를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온 세상에 파시하는 사변적인 해로 빛내이시려는 절세위인의 한없이 넓은 도량과 대용단도 어려있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당국은 물론 남녘의 각계층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접하고 『벽찬제안』, 『신년사의 내용과 표현이 전례가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라고 하면서 적극 지지 환영해나서고 있으며 남조선언론들도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통큰 제의』 등으로 대서특필하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북남관계, 조국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천명하신 강령적 가르침은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북남사이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 환경부터 마련하는 것은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을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지금처럼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되는 속에서는 북파 남이 예정된 행사를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서로 마주앉아 판계개선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은 온 겨레의 통일지향에 역행하여 미국의 대조선적 대시정책에 추종함으로써 정세를 혐약한 지경에 몰아넣고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더욱 격화시켰으며 북남관계는 풀기 어려운 경색국면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태를 끌

장내지 않고서는 나라의 통일은 고사하고 외세가 강요하는 핵전쟁의 참화를 면할 수 없다. 조성된 정세는 지금이야말로 북파 남이 과거에 얹매이지 말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절박한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다면 어느 누구도 민족앞에 멋진 모습으로 나설 수 없다.

새해는 공화국이 자기의 창건 일흔돐을 대경사로 기념하게 되고 남조선에서는 겨울철 올림픽경기대회가 열리는 것으로 하여 북파 남에 다같이 의의 있는 해이다. 북파 남은 민족적 대사들을 성실히 치르고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내외에 떨치기 위해서도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여야 한다.

무엇보다 북남사이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 환경부터 마련하는 것은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을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지금처럼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되는 속에서는 북파 남이 예정된 행사를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서로 마주앉아 판계개선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수도, 통일을 향해 곧바로 나아갈 수도 없다. 북파 남은 정세를 격화시키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하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온 겨레의 운명과 이 땅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미국의 무모한 북침핵전쟁책동에 가담하여 정세격화를 부추길 것이 아니라 긴장완화를 위한 공화국의 성의 있는 노력에 화답해나서야 한다. 이 땅에 화염을 피우며 신성한 강토를 피로 물들일 외세와의 모든 핵전쟁연습을 그만 두어야 하며 미국의 핵장비들과 침략무력을 끌어들이는 일체 행위들을 걸어치워야 할 것이다.

미국이 아무리 핵을 휘두르며 전쟁도발책동에 광분해도 이제는 공화국에 강력한 전쟁억제력이 있는 한 어찌지 못할 것이며 북파 남이 마음만 먹으면 능히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긴장을 완화시켜나갈 수 있다.

민족적 화해와 통일을 지향해나가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고 말할 수 있다.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는 것은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근본전제이다.

북남관계개선은 당국만이 아니라 누구나가 바라는 초미의 관심사이며 온 민족이 힘을 합쳐 풀어나가야 할 중대사이다. 북파 남사이의 접촉과 래왕, 협력과 교류를 폭넓게 실현하여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통일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년

사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원한다면 남조선의 집권여당은 물론 야당들, 각계각층 단체들과 개별적 인사들을 포함하여 그 누구에게도 대화와 접촉, 래왕의 길을 열어놓을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상대방을 자극하면서 동족간의 불화와 반목을 격화시키는 행위들은 결정적으로 종식되어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지난 보수 『정권』 시기와 달리 없이 부당한 구실과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내세워 각계각층 인민들의 접촉과 래왕을 가로막고 련북통일기운을 억누를 것 이 아니라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데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북남관계를 하루빨리 개선하기 위해서는 북파 남의 당국이 그 어느 때보다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시대와 민족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현 북남관계를 수수방관한다면 그 어느 정치인도 민족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고 말할 수 없다.

북남관계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내부문제이며 북파 남이 주인이 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그러므로 북남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의 원칙에서 풀어나가려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가져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문제를 외부에 들고나니며 청탁하여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는 외세에게 간섭의 구실을 주고 문제해결에 복잡성만 조성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다. 지금은 서로 등을 돌려대고 자기 립장이나 밝힐 때가 아니며 북파 남이 마주앉아 우리 민족끼리 북남관계개선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그 출로를 파감하게 열어나가야 할 때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남조선에서 머지 않아 열리는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로 될 것이다. 우리는 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하면서 이러한 견지에서 공화국은 대표단과 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명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한피줄을 나눈 겨레로서 동족의 경사를 같이 기뻐하고 서로 도와주는 것은 옹당한 일이라고 하시였다.

통일애국의 숨결로 높이고 우리 민족끼리의 자주통일의지가 뜨겁게 맥박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인 신년사는 지금 전체 조선민족에게 조국통일의 최후승리에 대한 무한한 신심과 랙판을 안겨주고 있다.

조국통일의 구성이 시고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민족의 앞길은 창창하며 조국통일위업의 최후승

리는 확정적이다.

북파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나감으로써 뜻깊은 올해에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내외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새 력사를 써나가야 할 것이다.

지 『렘취취』, 인터넷 홈페이지들인 『빠뜨리오드 모스크바』, 중국의 신화통신, 중국보도망, 환구망, 인민망, 국제방송망, 몽골의 몬짜메통신, 싱가포르 신문들인 『스트레이츠 타임스』, 『런던조보』, TV 『아시아소식통로』, 홍콩 『명보』, 이란의 일나통신, 타스통신, 인디아의 신문들인 『힌두스탄 타임스』,

『인디안 엑스프레스』, 『스테이츠맨』, 『힌두』와 잡지 『비즈니스 스탠다드』,

『오프라리아의 ABC방송은

김정은령도자께서

신년사를

통해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

대업을 성취한데 대하여 천명

하시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언급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조선의

핵무력은 미국의 핵위협을 제

압하는 강력한 억제력으로 된

다고 하시면서 올해에 핵탄두

들과 탄도로켓들을 대량생산

하여 실전배치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나갈데 대하여 강조

하시였다.

로씨아의 따쓰통신, 리아

노보스찌통신, 인터넷 잡

## 『김정은령도자 북조선이 핵무력을 완성하였다고 선언』,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실전배비를 강조』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 신년사를 여러 나라에서 보도

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개선향상시키는것이라 고 언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올해의 투쟁과 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전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굳게 단결시키고 혁명적 당풍을 철저히 확립하여 혁명과 전선사업전반에서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새해는 조선에서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대경사로 기념하게 되고 남조선에서는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맞는 올해에 수행하여야 할 과업들을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올해 사회주의경

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종화하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맞는 올해에 수행하여야 할 과업들을 밝혀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적 당풍을 철저히 확립하여 혁명과 전선사업전반에서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새해는 조선에서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대경사로 기념하게 되고 남조선에서는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맞는 올해에 수행하여야 할 과업들을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올해 사회주의경

제전략수행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종화하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맞는 올해에 수행하여야 할 과업들을 밝혀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적 당풍을 철저히 확립하여 혁명과 전선사업전반에서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올해 사회주의경

제전략수행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종화하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맞는 올해에 수행하여야 할 과업들을 밝혀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적 당풍을 철저히 확립하여 혁명과 전선사업전반에서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로씨아의 따쓰통신, 리아노보스찌통신, 인터넷 잡

본사기자

# 신년사에 어린 숭고한 통일애국의 세계

새해의 첫아침 겨레모두의 가슴을 울려준 신년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지니신 한없이 숭고한 민족애와 투철한 민족자주사상, 확고한 통일의지가 자자 구구마다에 흘러넘치고 있다.

무엇보다도 신년사에는 세계적인 핵강국지위에 오른 우리 민족의 위상에 맞게 북과 남이 파거에 얹매이지 말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결심과 의지가 어려워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우리는 앞으로도 민족자주의 가치를 높이 들고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나갈것이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내외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새 역사를 써나갈것이라고 천명하시었다.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통일의 밝은 앞길을 열어나가시려는 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그이께서는 이미 6년전 4월 위대한 주석님 탄생 100돐 경축열병식에서 하신 연설에서 오랜 세월 한 강토에서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겨레가 근 70년동안 분렬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라고 하시면서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 나가야 한다고, 조국통일의 혁牲적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적이고도 인내성 있는 노력을 기울일것이라고 천명하시였다.

민족의 분렬을 하루빨리 끝장낼 단호한 결심과 의지를 안으시고 혁사의 땅 판문점에도 숭고한 정도의 자욱을 새기신 원수님이시다.

그이의 심중에는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 겨레의 통일념원을 꽂아 퍼우실 신념과 의지가 차넘치고 있다.

우리 민족에게 분렬의 비극을 강요한 외세는 결코 통일을 선사하지 않는다. 조국통일의 주인은 우리 민족자신이며 온 겨레의 단합된 힘으로 대해서만 앞당겨올수 있다. 이 진리를 누구보다 가슴깊이 새겨안으신 원수님이시기에 통일문제해결에서 우리 민족끼리, 민족자주의 가치를 시종일관 내세우고 계신다.

신년사의 구절마다에는 또한 북과 남이 주인이 되어 군사적대결과 불신을 해소하고 외세가 강요하는 핵전쟁의 참화를 막으며 민족공동의 안녕과 조선반도평화를 수호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평화애호리념과 뜨

거운 민족애가 맥동치고 있다.

우리 민족은 누구나 평화를 갈망하고 있다. 이 땅에서 다시 전쟁이 터지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외세가 이 땅의 인민들, 우리 겨레의 운명을 통락하고 위협하려는 것을 절대로 용납치 않으신다.

지난해에 악의 제국인 미국에서 《완전파괴》, 《절멸》이니 하는 너두리가 울려나왔을 때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면서 미국의 늙다리미 치팡이를 반드시 불로 다스릴 단호한 결심과 의지를 펴려고 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긴장을 완화시켜나가자면 북과 남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북과 남이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남조선당국이 이 땅에 화염을 피우며 신성한 강토를 펴려고 노력하는 외세와의 핵전

쟁연습에 계속 가담한다면 군사적긴장은 더욱 격화되고 나중에는 전쟁이 터질 수 있다.

전쟁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위하여 북남이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그이의 애국의 호소는 그래서 더욱 절절하고 겨레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다.

신년사에는 북과 남에 다같이 의의있는 올해를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온 세상에 표시하는 사변적인 해로 빛내이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없이 넓은 도량과 대용단도 어려여 있다.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 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여야 한다. 민족적화해와 통일을 지향해나가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여야 한다. 진정으로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원한다면 남조선의 집권여당은 물론 야당들, 각계각층 단체들과 개별적인 사람들을 포함하여 그 누구에게도 대화와 접촉, 협력, 교류의 길을 열어놓을 것이라는 신년사의 구절구절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남조선에서 머지않아 열리는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서도 우리는 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대표단파견을 포함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하신 신년사는 남조선의 언론들과 전문가들, 각계층 인민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남조선의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상사진 문헌을 정중히 모시고 《김정은위원장, 매우 자신감이 넘치고 핵, 미싸일 기술도 완성되었다는 것이 읽힌다.》고 하였다.

세종연구소 통일 전략연구실장과 동국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김정은위원장이 핵 무력완성을 바탕으로 그 어느때보다 대미핵 억제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핵무력 완성을 바탕으로 대미핵 억제력과 함께 핵무력완성을 따른 전략 국가로서의 부상을 통해 한 강한 자신감의 표출이다.》, 《국가핵 무력완성을 토대로 남북관계개선의 적극적 의지를 표출한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고 하였다.

《국가안보전략 연구원》은 1일 배포한 《2018년 김정은위원장신년 특집분석》에서

《김정은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창겨울올림픽을 거론한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남북관계개선에 대한 자신감과 의지를 표한것이다.》고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남조선의 통일운동단체들이 북남관계개선에 앞장설것을 다짐하였다. 남조선의 한 주민은 인터넷에 《새해 좋은 소식으로 열게 됩니다. 김정은위원장님 고맙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정녕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고 조국통일의 찬란한 구성이 신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여 2018년은 북남관계와 통일역사에 자랑스러운 한페이지를 수놓아가게 될것이다.

그러면서 《북의 지도자가 엄동설한에 밝

본사기자 김철진

희망찬 새해의 첫기슭을 떠난 사람들중에서 발걸음소리 제일 높은것은 청년들이다. 올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청춘의 열정과 기백이 넘치는 청년들이 공장, 발전소, 건설장을 그리고 과학, 교육, 보건, 문화예술, 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앞장에 서있다.

청년들의 미더운 모습이자 약동하는 공화국의 현실이다. 나라의 밝은 미래가 청춘들의 얼굴에 비껴있다.

사회발전에서 청년들이 노는 역할은 자못 크다. 청년들이 어떻게 준비되는가에 따라 나라와 민족의 장래가 좌우되는 법이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청년문제를 바로 해결한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수천만명의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이 방황하고 마

약, 알콜중독자, 자살자가 끊임없이 늘고있는것이 오늘의 세계현실이다. 국도로 부페타락하고 이지러진 청년들이 살

인파 래탈, 폭력행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사회는 그들을 우환거리로 치부하면서 외면하고 박대하고 있다. 세계

의 열점지역, 분쟁지역들에서 테로범이 되고 류혈참구의 희생물로 되고 있는것도 청년들이다.

그러나 조선에서 청년들의 모습은 이와는 판판 다르다.

령도자의 애국의 뜻과 구상을 일심으로 받들고 따르는 고결한 충정의 열도와 국가와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 아름다운 리상과 포부로 충만된 열정과 고상한 미덕은 조선청년들의 고유한 특질이다.

위대한 령도자의 탁월한 청년중시사상과 현명한 령도에

의회에 조선청년들은

로운 위훈을 이어나가시

고 하시였다.

원아들의 모습을 정겹게 바

짧은 기간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우는데서도 혁혁한 위훈을 세웠다.

사회주의운명을 판가름하는 반제반미대결전의 준엄한 나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 조국을 결사

수호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환의 시대를 여는데 크게 기여한것도 청년들이다.

오늘 공화국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중시사상

과 령도를 그대로 이어나가시

고 하시였다.

라보시던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원아들에게 이런 훌륭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설을 함께 쇠니 얼마나 좋은가고, 힘들어도 보람있는 길을 걸어왔다는 자부심이 생긴다고, 이 애들의 모습을 보니 우리 조국의 밝은 앞날에 대하여 더 굳게 확신하게 된다고 하시였다.

로한 여러가지 식료품들을 떨구지 않고 보장해주는 체계를 그흔하게 세워주었는데 아이들의 성장발육에 맞게 영양 관리를 위생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해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원아들의 모습을 정겹게 바

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여 청년 강국의 존엄과 위용을 높이 떨치고 있다.

청년들이 들끓어야 온 나라가 들끓고 청년들의 발걸음이 빨라야 부강할 미래가 앞당겨지게 된다는 경애하는 원수님

의 뜻깊은 말씀에 그이의 청년중시사상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 청년이라면 하나님을 연구해도 세계를 놀래우는 최첨단의 것을 내놓고 한가지 일을 해도 하늘을 나는 초음속비행기의 속도로 해제끼는 웅대한 포부와 진취성이 있어야 한다는 그이의 말씀에 청년들에 대한 두터운 믿음과 크나큰 기대가 깃들어있는것이다. 령도자의 각별한 사랑과 보살핌속에서 나라의 기둥으로, 미래의 역군으로 떠받들리우는 청년들의 애국열은 불처럼 뜨겁다.

조국이 부르는 곳에는 어데가나 청년들이 있고 그들이 세운 위훈은 별처럼 빛나고 있다.

조선청년들은 사회주의대가 정을 떠메고나가는 미덕의 소유자들이다. 부양자가 없는 늙은이들의 친자식이 되고 영예군인들과 일생을 같이 하며 부모잃은 아이들을 스스로 맡아

《처녀어머니》가 되는 청년

들의 고상한 미덕은 황금만능

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상상

도 할수 없는 일이다. 전 세대

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사회

주의제도에서 행복을 누리기

만하는것이 아니라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삶

의 순간순간을 창조와 위훈으로 빛내여려는것은 조선청년들의 삶의 목표로, 지향으로 되고있다.

우주를 정복하는 경이적인 발전과 최첨단돌파의 기적적인 성과들, 청년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수많은 기념비적 창조물들과 체육, 예술을 비롯한 문명강국건설에서 일어나고 있는 눈부신 변혁들은 리상파포부가 원대하고 창조적힘이 무궁무진한 조선청년들의 슬기와 용맹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조선청년들은 사회주의대가 정을 떠메고나가는 미덕의 소유자들이다. 부양자가 없는 늙은이들의 친자식이 되고 영예군인들과 일생을 같이 하며 부모잃은 아이들을 스스로 맡아

《처녀어머니》가 되는 청년

들의 고상한 미덕은 황금만능

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상상

도 할수 없는 일이다. 전 세대

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사회

주의제도에서 행복을 누리기

만하는것이 아니라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삶

의 순간순간을 창조와 위훈으로 빛내여려는것은 조선청년들의 삶의 목표로, 지향으로 되고있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에서도 《이북의 청년들은 민족의 자랑이고 보배다.》, 《북의 청년들은 타락과 절망으로 오염된 지구에 청신한 기운을 안아오는 인류의 귀중한 꽃이다.》라는 동경과 부러움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 국제 사회계는 《조선청년들의 심장은 모두 화불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다.》, 《조선청년들은 령도자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청춘을 바치는 애국의 청년대오로 되었다.》, 《불패의 청년대군을 가진 조선의 미래는 창창하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애국심에 불타는 청년들을 굳게 믿고 그들이 사회주의강국의 문폐를 남 먼저 달게 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이고 의지이다. 그이의 령도따라 조선청년들은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선봉대, 선구자, 개척자의 영예로운 본분을 다하고 있다.

500만청춘들의 미더운 모습에서 인민들은 국가의 창창한 앞날을 락관하고 있다.

옥철웅

## 청년 강국의 현실

의 뜻깊은 말씀에 그이의 청년중시사상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 청년이라면 하나님을 연구해도 세계를 놀래우는 최첨단의 것을 내놓고 한가지 일을 해도 하늘을 나는 초음속비행기의 속도로 해제끼는 웅대한 포부와 진취성이 있어야 한다는 그이의 말씀에 청년들에 대한 두터운 믿음과 크나큰 기대가 깃들어있는것이다. 령도자의 각별한 사랑과 보살핌속에서 나라의 기둥으로, 미래의 역군으로 떠받들리우는 청년들의 애국열은 불처럼 뜨겁다. 조국이 부르는 곳에는 어데가나 청년들이 있고 그들이 세운 위훈은 별처럼 빛나고 있다.



##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

### 신년사를 마치시는 길로

세해전 1월 1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신년사를 마치시는 길로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을 찾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식당에 들리시여 육아원과 애육원들에 물고기와 고기, 남새, 파일을 비

### 시운전중에 있는 삭도를 타보시며

일군들을 보시며 그이께서는 인민들이 이용할 모든 주로들을 다 보겠다고 하시며 안전성이

세계가 공인하는 전략국가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 남다른 존엄과 궁지를 안고 새해의 첫 진군길에 멀쳐나선 공화국 인민들의 기세와 열의는 뜨겁다. 지난해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제재 봉쇄책동이 그 어느때보다 악랄하게 감행되는 속에서 자체의 힘으로 남들이 엄두도 내지 못할 빛나는 승리를 달성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올해에도 더 큰 비약과 전진을 이루려나가려는 것이 공화국군민의 한결 같은 마음이고 의지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자!』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시고 올해의 휘황한 투쟁목표와 방략들을 환히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에 경제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기 위한 과업과 방도, 자위적국방력강화에 힘을 넣어 나라의 군력을 억척같이 다지며 오늘의 만리마대진군에서 영웅적조선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을 날김없이 폭발시켜 나갈테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령도자의 구상과 결심은 곤실천이다.

공화국이 그처럼 어렵고 복잡한 정세속에서 지난 몇해어간에 국가발전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거창한 창조와 눈부신 비약을 이루할 수 있음

# 새로운 승리를 향한 힘찬 진군길

것은 출중한 자질과 비범한 령도실력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천리해안의 심오한 사상리론적지와 과학적인 통찰력, 혁신적인 창조정신과 영활하고로숙한 전개력은 그이의 특출한 자질이고 령도실력이다.

한 나라, 한 민족이 자기 발전의 길을 옮바로 걸어나간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끊임없는 창조와 혁신이 없다면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던 자랑스러운 혁사도 순간에 엿일로 묻히고만다.

위대한 계승은 위대한 창조를 요구한다.

위대한 장군님과 영결한 비통한 마음을 안고 이 땅의 남녀로소모두가 끝없이 홀려내리는 눈물을 겉잡지 못하고 있던 바로 그나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이미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며 어버이수령님 탄생 100돐을 맞으며 완공하여야 할 대상건설에 힘을 넣을 데 대한 지시를 주었다고 하시면서 장군님의 강국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제부터 우리는 그야말로 빠른 속도로 달려나가야 한다고, 우리는 장군님의 강국건설구상을년대별로 실현

해나갈것이 아니라 년대와 대를 뛰여넘어 비약하면서 실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에는 우리 인민이 영원히 지녀야 할 투쟁기풍과 일본새가 담겨져 있었고 최후의 승리를 위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직선주로가 비껴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에서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합법적요구에 맞게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였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로선은 공화국의 전쟁억제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경제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로선이다.

그것은 병진로선이 제시된 때로부터 불과 5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공화국이 핵무력 완성의 혁신적대업을 빛나게 실현함으로써 나라의 존엄과 안녕을 굳건히 수호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 더 힘있게 매진할수 있게 된 오늘의 현실이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한다고, 미국본토전역이 우리의 핵타격사정권안에

있으며 핵단추가 내 사무실책상우에 항상 놓여있다는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엄숙히 언명하시였다.

이것은 공화국이 평화수호의 보검을 자기손에 들어쥐었으며 강력하고 믿음직한 전쟁억제력에 의거하여 부강조국건설을 줄기차게 밀고나갈수 있게 되었다는것을 밝혀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는 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게 하는 만능의 보검이며 비약과 변혁의 원동력이다.

인민들이 하루빨리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향유할 데일을 구상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결심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국가경제력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인민의 리상과 꿈은 나날이 현실로 이루어지고있다.

주체 102(2013)년 6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들에게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라는 주체 102(2013)년 6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호소문에서 전체 군인건설자들은 단숨에 정신으로 스키장건설을 화약에 불이 달린 것처럼, 폭풍처럼 전격적으로 밀고나감으로써 21세기의 새로운 일당백공격속도, 『마식

령속도』를 창조하라고 강조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혁사적인 호소는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애국의 불길을 지펴올렸으며 새로운 비약의 속도를 창조하게 하였다.

이렇게 창조된 마식령속도는 조선속도,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 만리마속도로 비약하며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아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다른 위대한 김정은시대, 새로운 청춘시대를 열어놓았다.

노래는 시대의 메아리이며 사람들의 생활감정의 반영이다. 사람들 누구나 즐겨 애창하는 시대의 명곡 『조국찬가』에 『악동하는 짚음으로 비약하는 그 모양』, 『창공에는 우리 국기 무궁도록 나붓기고』, 『이 땅에선 모든 꿈이 이루어지리』라는 구절도 있는 것처럼 오늘 공화국은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루며 인민의 꿈과 리상을 활짝 꽂고위가고있다.

지난해에만도 적대세력의 악랄한 제재와 혹심한 자연재해 속에서도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김책체철련합기업소에 우리식의 산소열법용광로가 일떠서 무연탄으로 선철생산을 정상화할수 있게 되었으며 화학공업의 자립적도를 강화하였다. 평양가방공장, 류경김치공장, 금산포젓갈가공

공장, 삼천메기공장, 평양버섯공장, 류원신발공장, 평양화장품공장, 삼지연갑자기루생산공장 등 수많은 현대화된 공장들에서는 인민들의 인기를 끄는 질좋은 제품들이 쏟아져나왔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우리의 혁파과 기술로 만든 새형의 뜨락포르와 화물자동차생산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함으로써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와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더욱 힘있게 나그쳐나갈 수 있는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농업부문에서는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도 높고 안전한 소출을 별수 있는 다수확 품종의 농작물들을 육종해하여 식생활향상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았다.

지난 기간 이룩된 모든 기적과 위훈은 조성된 정세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과학적이고 정확한 로선과 전략전술을 제시하시고 혁명하게 이끄신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선견지명과로 속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그이가 계시여 올해 2018년도 세계가 알지도 체험하지도 못한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래일을 확신하며 이 땅의 천만군민은 새해의 첫 발걸음을 힘있게 내짚었다.

주체조선의 건국과 발전행로에 빛나는 영웅적투쟁과 집단적혁신으로 그 이름 세계에 멀친 위대한 인민이 올해에 자기국가의 창건 일흔돐을 어떻게 성대히 기념하는가를 세계는 보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사회주의바다향기를 안겨주신분, 완공을 앞둔 창조물들을 돌아보실 때에는 이제 여기에 인민의 웃음소리가 넘쳐날것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흐뭇해진다고, 이런 멋에 혁명을 한다고 하시는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이께서는 두해전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으며 인민의 불행을 가셔주는것 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다고 하시면서 사나운 자연재해가 휩쓸었던 지역들을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키도록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시였다.

강위력한 핵억제력을, 이것이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필승의 보검이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깊은밤, 이른새벽에도 위험천만한 시험장소들과 조립현장, 발사장을 찾고찾으시며 공화국을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시였다.

이렇듯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끝없는애혹과 철석같은 믿음으로 군대와 인민이 하나로 굳게 뭉친것이 바로 조선의 일심단결이다. 령도자는 인민을 위해 불멸의 헌신을 수놓고 인민은 령도자의 사상과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물과 불속도 헤쳐가는 혈연의 관계, 이 가를 수 없는 혼연일체와 맞설 무기는 지구상 그 어디에도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해를 맞으며 하신 신년사에서도 모든 사업을 일심단결을 강화하는데 지향시키고 복종시켜나가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천출위인이 계시고 일심단결의 최강의 무기가 있어 조선을 건드릴자 그 어디에도 없으며 2018년에도 공화국은 창조와 변혁, 승리의 자랑스러운 혁사를 써나가게 될것이다.

현승철

##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게하고 인민생활향상에 제동을 걸어 어떻게 하나 령도자에 대한 인민의 신뢰심을 떨어뜨리려 하였으며 그렇게 되기를 고대하였다. 저들이 자인한바와 같이 보기 드문 위협이였고 침혹한 제재였던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의 상상을 부정해버렸다. 최악의 난관속에서도 령도자는 인민을 믿고 인민은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며 핵무력건설과 경제건설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였다.

공화국은 각종 핵운반수단과 함께 초강력열핵무기시험도 단행함으로써 국가핵무력완성의 총적지향과 전략적목표를 성과적으로, 성공적으로 달성

하였으며 마침내 그 어떤 힘으로도, 그 무엇으로써도 되돌릴 수 없는 강력하고 믿음직한 전쟁억제력을 보유하게 되였다.

자력자강의 가치높이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이 힘있게 추진되는 속에 경공업부문의 많은 공장들에서 인민소비품의 다종화, 다양화를 실현하고 제품의 질을 높일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었고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새형의 뜨락포르와 화물자동차차들을 생산하여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와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는 튼튼한 기초를 닦아놓았다.

농업부문에서 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여 불리한 기후조건

에서도 알곡생산량을 늘이고 혼례에 보기 드문 파일풍작을 안아왔으며 웅장화려한 려명거리와 대규모의 세포지구 축산기지를 일떠세우고 산림복구 전투 1단계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군민대단결의 위력과 사회주의자립경제의 잠재력을 파시하였다.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제재봉쇄책동이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하게 감행되는 속에서 자체의 힘으로 남들이 엄두도 내지 못할 빛나는 승리를 달성한 바로 여기에 조선인민의 존엄이 있고 커다란 궁지와 자부심이 있다.

지난해에 이룩한 모든 성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



이 땅의 새해는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보다 힘찬 발걸음으로 시작되었다.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의 전력생산자들이 새해에 들어와 첫 3일동안에 수백만㎾의 전력을 충전하는 성과를 이룩한데 이어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동료들, 기술자들이 나라의 강철생산에 크게 이바지할 20산소전로건설공사를 힘있게 벌려 성과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 새해 첫 전투에 진입하여 강철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할 때 2.8직동청년탄광에서도 상차설비들이 기운차게 용을 쓸 때마다 석탄이 폭포처럼 쏟아져내리고 있다.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혁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고 조국번영의 진군길을 힘차게

## 신심과 희망에 넘쳐

달려온 지난 한해를 궁지 높이 둘이켜보면서 사회주의 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승리를 멀쳐갈 맹세로 심장을 불태우고 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자력자강의 동력으로 사회주의 강국건설사에 불멸의 리정표를 세운 영웅적투쟁과 위대한 승리의 해였다.

지난해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반공화국고립 압살책동은 국도에 달하였으며 공화국은 류례없는 엄혹한 도전에 부닥치게 되었다.

하지만 공화국은 그 모든 것을 파감히 물리치고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 날에 국가핵무력 완성의 혁사적대업을 성취하는 특출한 성과가 이

록되었다. 공화국은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검을 틀어쥐고 부강조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었다.

이뿐이 아니다. 자력자강의 동력으로 부닥치는 시련과 난관을 뚫고 국가 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었다.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의 자립적토대가 강화되고 방직공업, 신발과 편직, 식료공업을 비롯한 경공업부문의 많은 공장들의 주체화, 현대화실현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었다.

기계공업부문에서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새형의 끄락또르와 화물자동차생산목표를 점령하고 동업부문에서 다수확농장

파작업반대렬을 늘이고 례년에 보기 드문 파일풍작을 안아왔다. 만리마속도창조를 위한 벽찬 투쟁 속에 응장화려한 혁명거리가 일어서고 과학문화전선에서도 놀라운 성과가 이룩되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적과 변혁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불면불휴의 초강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승리의 해 2017년을 궁지높이 추억하며 희망찬 새해의 진군길에 들어선 지금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진두에 높이 모시고 전진해가는 앞길에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는 확신이 더

워 굳어지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자!》를 올해에 들고나가야 할 혁명적구호로 제시하시였다.

이 구호에는 전후 천리마대고조로 난국을 뚫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킨것처럼 전인민적인 총공세를 벌려 최후발악하는 적대세력들의 도전을 짓부시고 공화국의 전반적국력을 새로운 발전단계에 옮려세우시려는 그이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져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는 앞으로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이 휙휙 지나갔다.

2018년에 공화국은 또 하나의 승리의 년륜을 자랑스럽게 새겨갈것이다.

본사기자 흥법식



승리의 장쾌한 축포를 기쁨 속에 바라보는 각계층 군중들

**[승고한 민족애와 통포애]**

## 태권도와 함께 영생하는 삶

조선독재 《정권》을 반대하고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약하였다.

1979년 5월 12일은 그에게 있어서 지나온 생을 구획짓고 새로운 인간으로 세상에 두번 다시 태여난 영원히 잊을수 없는 날이였다.

그날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

로에서 불미한점은 백지화하시고 꾸절많은 인생의 마음속상처를 깨끗이 가시도록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베푸시였다.

그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부작예술영화 《민족파운명》에 최홍희선생을 원형으로 한 속편을 창작하도록 하시여 그의 인생이 예술화폭과 함께 더욱 아름답게 빛나도록 보살펴주시였다.

절세위인들의 대해같은 믿음과 운총속에서 불우한 사나이로부터 복받은 행운아로 다시 태여난 최홍희선생은 오래동안의 정신적방황에서 벗어나 통일애국의 곧은 항로를 따라 인생의 노를 저어갈수 있었다.

1980년 9월 최홍희선생이 인출한 태권도시범단은 조국에서 성황리에 시범출연을 하였다.

어느날 그를 만나시고 태권도시범출연에 대한 조국인민들의 열렬한 절찬을 들려주신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선생이 종재로 있으면서 국제태권도련맹을 세계적의의가 있는 조직으로 발전시킨 것은 우리 민족의 커다란 자랑이라고 하시면서 그의 공로를 높이 치하하였다.

민족의 슬기와 기상이 담긴 태권도에 깃든 최홍희선생의 재능과 애국심을 귀중히 여기시고 민족의 재사로 높이 내세워주신 위대한 주석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후 그가 집필한 전 15권으로 된 《태권도백과사전》을 조국에서 출판하도록 조처하시여 최홍희선

생이 평생소원을 풀도록 배려해주시였다.

태권도에 대한 최홍희선생의 꿈을 실현시켜주고 우리 나라를 태권도모국으로 존엄멸치도록 하시려는 위대한 주석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관심과 보살핌속에서 우리 나라에 정연한 태권도보급체계가 세워지고 학생소년들과 근로자들속에서 태권도운동이 활발해지고 태권도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게 되었다.

짧은 기간에 세계의 5대륙과 많은 나라들에 널리파급되어 세계적인 무도로 위력멸치게 되었다.

《태권도때문에 나의 인생은 써워야 할 파란과 무릅써야 할 모험도 많았다.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살벌한 타향에서 망명생활을 하는 기구한 운명에 있었지만 위대한 주석님과 장군님이 계시기에 영세속에 밟자국을 남기려던 나의 꿈은 이루어졌다. 한 인간으로서 이 이상 호못함과 즐거움을 다 표현할수 없는것이 유감이다.

그이의 세심한 지도와 보살펴심속에 1992년 9월 태권도전당이 건설되었다. 태권도에 평생의 뜻을 품었던 최홍희선생은 절세위인들의 한량없는 믿음과 사랑속에 자기의 념원을



늘의 최홍희가 있고 태권도가 있는 것이다.》

생전에 최홍희선생이 태권도 인들에게 한 말이다.

그가 토로한것처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최홍희선생에게 베푸신 은총은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 최홍희선생이 배짱이 있고 립장이 있다고, 씨원씨원하고 한다면 하고 안한다면 안하는 결단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의 인간됨을 높이 평가도 하시고 언제인가 그가 명상에 몸져누워있을 때에는 최선의 치료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시고 귀한 약재도 보내주시였다.

인간의 참모습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비낀다고 하였다.

2002년 6월 운명을 앞두고 최홍희선생은 태권도련맹의 관계자들에게 마지막말을 남기였다. 자신이 다 받들지 못한 위대한 주석님과 장군님의 뜻을 태권도인들이 끝까지 실천해달라는 당부였다.

애국충신, 애국적무도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최홍희선생이다. 자기 인생에 한때 파란곡절은 많았지만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믿음과는 총속에 인생의 웃은길을 걸으며 애국지사, 민족의 자랑스러운 무도인으로 생의 흔적을 남기였다.

하기에 국제태권도련맹 부총재는 정통태권도인들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각하께서 최홍희선생과 국제태권도련맹에 돌려주신 사랑과 은정을 언제나 잊지 않을것이라고 말하였다.

민족정통무도발전에 크나큰 토고와 심혈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와 세심한 보살펴심속에 태권도전당이 보다 현대적으로 개건되였고 지난해 9월에는 제20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어 정통무도의 우수성과 위력을 힘있게 표시하였다.

본사기자 리설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승리봉을 향한 전인민적인 총공세를 벌려나가는 우리 민에 대한 진보적인류의 끝없는 찬사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그것은 뜻깊은 계기들에 여러 나라 정당 당수들과 인사들이 보내여온 축전과 축하편지를 뜨렷이 반영되어있다.

《끼르기즈 엘》 인민통일공화국정당 중앙리사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은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한 사회주의나라이다.

조선인민은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세우고있으며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경이적인 성과들을 통해 자기 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전세계에 표시하고있다.

새 유고슬라비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미국의 계속되는 경제봉쇄동속에서도 사회주의건설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는것은 당파 수령의 두리에 하나와 같이 굳게 뭉친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 투쟁의 결과이라고하면서 이 혼연일체는 그 누구도 허물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전렬에 당당히 들어섰다고 하면서 스위스조선위원회 위원장은 조선은 사회주의의 보루이며 그 누구도 주체조선의 앞길을 막을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모든 적대세력들의 제재책동을 물리치며 이룩하고있는 위대한 성과들은 주체의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실증해주고 있다고 격찬하였다.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안고 사회주의강국건설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고있다.

일심단결로 굳건한 주체조선의 앞길을 그 누구도 막을수 없으며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사회주의강국의 혁명을 반드시 안아올것이다.

본사기자

# 《무엇보다 북남사이의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부터 마련하여야 합니다.》

김정은

## 평화보장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가르쳐주신바와 같이 북남사이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부터 마련하는 것은 더는 미룰수 없는 초미의 과제이다.

오늘 조선반도에는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광란적인 핵전쟁 소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에는 핵전쟁의 불구름이 향식적으로 떠돌고 있으며 그로 인해 우리 민족의 생존권이 엄중히 위협당하고 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는 북파 남이 올해에 예정된 행사들을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서로 마주앉아 관계개선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수도 없다.

북파 남은 정세를 격화시키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하며 군사적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환경

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북파 남은 지난 기간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6.15공동선언발표후 북파 남은 여러차례에 걸친 장령급군사회담들을 통하여 북남사이에 비방증상과 상대방을 자극하는 행동을 일체 중지할데 대한 문제들을 협의하고 실천에 구현하였으며 금강산 및 개성공업지구에서 벌어지는 경제협력과 교류를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문제들도 성과적으로 풀어나갔다. 10.4선언에서도 북파 남은 군사적 대관계를 종식시키고 조선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지난 2008년 남

조선에서 극우보수세력이

집권한 때로부터 북파 남사이에 대결이 격화되면서 신뢰분위기가 사라지고 군사적충돌과 전쟁위험만이 고조되는 엄중한 사태가 빚어지게 된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남조선당국이 조선반도의 정세를 격화시키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날 북파 남사이에는 첨예한 군사적긴장이 조성되어 있으며 사소한 우발적인 충돌도 전면전쟁으로 번져질 수 있는 맡그대로 일촉즉발의 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더우기 지금 미국은 북파 남이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아래 화해와 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한사코 가로막아보려고 위험천만한 군사적도발에 매여달릴 기도를 풀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본사기자 김철민

이러한 엄중한 정세에서 남조선당국은 지난 시기처럼 이 땅에 화염을 피우며 신성한 강토를 펴로 물들일 외세와의 핵전쟁 연습에 매달리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을 그만두어야 하며 미국의 핵 장비들과 침략무력을 끌어들이는 일체 행위들을 걷어치워야 한다.

미국이 아무리 핵을 휘두르며 전쟁도발책동에 광분해도 공화국에 강력한 전쟁억제력이 있는 한 어찌 못할것이며 북파 남이 마음만 먹으면 능히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긴장을 완화시켜나갈 수 있다.

북파 남은 북남사이의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여야 할 것이다.

본사기자 김철민

### 군사적긴장완화는 청정세의 절박한 옥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무분별한 반공화국 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 핵전쟁 발원지로 되고 있다. 지난 한해 동안에도 미국은 우리 겨레의 평화지향에 도전하여 남조선에서 『키리졸브』, 『독수리』, 『을지 프리덤 가디언』과 같은 대규모 북침 합동전쟁 연습을 편이어 벌려놓고 조선반도정세를 일촉즉발의 위기로 몰아갔다.

북남사이의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 부터 마련하는 것은 현정세의 절박한 요구이다.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북파 남으로 갈라진지도 70여년, 우리 겨레는 너무도 오랜 세월 분열의 비극과 함께 전쟁의 위험 속에서 살아왔으며 외세의 침략책동으로 지난 세기 50년대에는 전쟁의 참화까지 겪지 않으면 안 되었다.

본사기자 김명성

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무분별한 반공화국 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 핵전쟁 발원지로 되고 있다. 지금처럼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되는 속에서는 북파 남이 예정된 행사들을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서로 마주앉아 관계개선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수도, 통일을 향해 곧바로 나아갈 수 도 없다.

남조선당국은 온 겨레의 운명과 이 땅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미국의 무모한 북침 핵전쟁책동에 가담하여 정세격화를 부추길 것이다. 이제 조선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의 불길이 터지는 경우 그것은 불피코 열핵전쟁으로 번져질 것이다. 하기에 조선반도의 평화에 대한 우리 겨레의 지향과 넘원은 날을 따라 더욱 강렬해지고 있다.

새해는 북에서 공화국 창건 일흔돐을 대경사로 기념하게 되고 남조선에서는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열리 것으로 하여 북파 남

## 평화수호의 강위력한 보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미국이 아무리 핵을 휘두르며 전쟁도발책동에 광분해도 이제는 우리에게 강력한 전쟁억제력이 있는 한 어찌 못할것이며 북파 남이 마음만 먹으면 능히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긴장을 완화시켜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공화국의 전쟁억제력은 미국의 침략과 전쟁방기를 꺾고 이 땅의 평화와 겨레의 안전을 지키는 강력한 보검이다.

힘이 약한 나라들을 끌라가며 치고 세계도처에 전쟁의 불구름을 식은죽 먹듯 휘워올리고 하는 미국이다.

지난해에도 미국은 주권국가인 수리아의 땅을 성취함으로써 미국의

에 수많은 미싸일들을 마구 펴붓는 야만행위를 눈꼽하나 까딱 안하고 감행하였다.

미국이 반세기이상이나 제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며 온갖 제재와 위협의 대상으로 삼아온것이 공화국이다. 미국은 조선민족의 운명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러한 미국의 전횡과 침략전쟁책동을 막자면 강력한 억제력이 필요하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 조선민족전체의 안전을 지키자고 하여도 우리 민족이 힘을 지녀야 한다. 그 힘이 바로 공화국의 강위력한 핵무력이다.

공화국은 지난해에 국가핵무력완성의 혁신적대업을 성취함으로써 미국의

그 어떤 핵위협도 분쇄하고 대응할 수 있으며 미국이 모험적인 불장난을 할 수 없게 제압하는 강력한 억제력을 가지게 되었다.

미국은 결코 공화국을 상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한다.

공화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책임있는 핵강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공화국의 자주권과 리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 어떤 나라나 지역도 핵으로 위협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명백히 천명하였다.

공화국의 자위의 강위력한 핵무력은 앞으로도 공화국의 안전,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해나가게 될 것이다.

리어금

## 《북파 남이 대화하는 것은 환영할 것이다》

### - 남조선 각계의 반향 -

새해 2018년을 맞으며 공화국이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평화를 위해 천명한 원칙적이고 성의 있는 입장을 남조선 각계가 적극 환영해나서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는 『대단히 환영할만한 제안이고 『정부』도 상용하는 립장을 취해야 한다.』, 『북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 협력회의 등을 통해 새로운 교류와 협력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올해에 통일운동단체들이 북남관계개선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였다.

『련합뉴스』, 『한겨

례』, 『통일뉴스』, 『자주시보』를 비롯한 남조선 언론들은 『2018년 신년사는 남북관계개선에 방점을 찍었다.』, 『신년사를 계기로 한반도 긴장격화상황이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대를 표시하였다.

남조선 강원도의 지사는 『신년사의 내용과 표현이 전례가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어서 깜짝 놀랐다.』, 『크게 환영한다.』, 『북남단일팀을 구성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적극 호응해나섰다.

남조선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의 파격적인 제안은 교착국면의 남북관계를 새로운 국면으로 끌

어울릴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북의 제안이 평창겨울올림픽의 성공과 조선반도평화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하겠다. 정치권도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충실행교와 동국대학 교의 교수들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상당히 파격적이고 유화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고 하면서 올해에 북남관계개선에서 변혁이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남조선 인터넷에는 『새해 반가운 소식이다.』, 『평창겨울올림픽이 남북평화를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조선반도평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대화 필요하다.』, 『평화로운 조선반도! 자주통일! 사랑한다.』 등 북남

본사기자



# 일본의 과거범죄를 물어드려고 강박한 미국

온 민족이 격분해 하는 일본군 성노예문제에 대한 이른바 《합의》의 배후에는 다름 아닌 미국이 서 있었다. 그것이 얼마전에 다시금 드러났다.

미국은 침략적인 세계지배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일본, 남조선과의 3각군사동맹 조작에 발악적으로 매달려왔다. 그런데 남조선과 일본을 갑자기 해주는데서 가장 큰 장애물로 되고 있는 것이 일본의 과거범죄이다. 만인이 분노하는 일본군 성노예범죄 문제도 그중의 하나이다.

이것은 미국에 있어서 큰 끌치거리가 아닐수 없다. 하기에 미국은 남조선과 일본의 좋지 못한 관계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그것을 해소하려고 음으로 양으로 책동해 왔다.

수년 전 일본을 행각한 당시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미일동맹 강화를 떠들면서 공화국의 《핵 및 미싸일 위협》에 대처한 3각군사동맹의 중요성에 대하여 협약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2015년에는 일본, 남조선집권자들을 위상頓에 불러들여 그들의 몸값을 높여주면서 협약인식

문제에서의 차이를 없애고 《타협》을 바라는 저들의 입장은 전적으로 따르도록 강박하였다.

미국은 과거 아시아나라들에 대한 침략전쟁인 정과 사죄반성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일본의 처사를 비호두둔해주는 한편 친미친일굴종적인 남조선의 이전 박근혜 《정권》에도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더이상 매달리지 말고 빨리 덮어버리며 일본과의 협상의 길에 나서라고 뻔질나게 강박하였다.

박근혜가 미국을 행각하였을 때에도 미국은 《역사를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남조선일본관계의 회복을 바란다》고 하면서 압력을 가하였다.

미국의 계속되는 압력으로 궁지에 몰린 박근혜는 남조선 각계의 드높은 반일감정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새로운 협력사》, 《신뢰와 우의를 쌓기 위한 노력》을 떠들어 대며 일본에 추파를 던지기 시작했다.

수년 전 박근혜의 미국 행각이 끝난지 며칠 안 되어 일본남조선 《수뇌회담》이 열리고 년말까

지 일본군성노예문제를 《합의》하기로 한 것은 결국 미국의 창안품이였던 것이다.

미국의 곤질긴 간섭과 부추김에 의해 2015년 12월 28일 남조선과 일본의 외교장관회담이라는 히트 일본군성노예문제와 관련한 빈껍데기 사죄와 뉙거리자금지출을 골자로 하는 굴욕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당시 남조선의 한 언론이 《합의》가 가장 기뻐하는 나라는 미국이다》고 폭로하고 어느 한 외신이 《합의는 미국의 압력 속에 만들어진 정치적 선택이라는 측면이 더욱 크다》고 평한 것도 우연한 것이다 아니다.

지금 미국이 《모든 당사국들이 이 민감한 사안에 치유, 화해, 상호신뢰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함께 노력하고 접근하기를 권고한다》, 《미국은 강력한 〈한〉 일관계를 추구하는 모든 노력을 환영한다》고 떠들고 있지만 그것은 굴욕적인 《합의》에 빠친 미국의 검은 손길을 더욱 드러내보여줄 뿐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 《밀실야합, 리면합의! 12. 28한일합의 즉시 폐기하라!》

### 남조선 평화 단체 대전에서 투쟁 전개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의 《평화나비대 전행동》이 지난해 12월 29일 대전에 있는 성노예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당국에 굴욕적인 일본군성노예문제 《합의》를 즉시 폐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단체는 지난 27일 공개된 성노예문제 《합의》 검토결과 보고서를 통해 그 굴욕적인 《합의》를 평의회에 제출하였고, 그들은 《정부》가 남조선과 일본 사이의 밀실 악합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에 드러났다고 규탄하였다.

발언자들은 2년 전 일본군성노예문제 《합의》가 발표될 때 각계가 강도적 《합의》와 다름없는 매국협상이라고 분노를 터쳤다고 말하였다.

이번에 《합의》 검토결과 보고서를 통해 그 굴욕적인 《합의》를 평의회에 제출하였고, 그들은 《정부》가 남조선과 일본 사이의 밀실 악합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에 드러났다고 규탄하였다.

그들은 《정부》가 《합의》 폐기와 동시에 조선반도에서 전쟁위기를 초래할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도 폐기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이어 기자회견문이 량독되었다.

회견문은 현 《정부》가 일본의 성노예문제에 대한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과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합의》를 전면 무효화하고 《화해, 치유재단》을 해산하며 일본이 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제공한 10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본사기자

지의 파정에 군사동맹강화를 위한 미국의 판여와 압박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회견문은 폭로하였다.

회견문은 현 《정부》가 일본의 성노예문제에 대한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과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합의》를 전면 무효화하고 《화해, 치유재단》을 해산하며 일본이 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제공한 10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본사기자

## 무엇을 노린 밤위비증대인가

일본정부가 올해 예산안에 사상최대의 방위비를 편성하고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일 일본의 어느 한 언론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올해 방위비를 지난해에 비해 1.3% 더 늘이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한다. 이로써 일본에서는 6년째 방위비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놀음을 합리화하기 위해 일본은 조선의 《핵, 미싸일 위협》에 대응하고 중국의 해양진출을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생여지를 부리고 있다.

일본이 방위비증대를 통해 실지로 노리는 것은 군

사대국화와 해외침략이다. 일본은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신시키려고 평화헌법도 뛰어고치려고 하는 아베정권 하에서 방위비가 해마다 대폭 증대되고 있는 것도 우연한 것이 아니다.

일본방위성은 2018년부터 《JUDGE》(탄도로켓의 궤도 및 락하점)을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자동경계판리체계)의 성능개량사업에 착수하여 2022년까지 완료하며 이를 위해 1억 US\$를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해상배치형 신형 요격미사일 《SM-3 블록2A》를 2021년부터 실전배치하고 지상배치형 요

격미사일종합체 《이지스 어서》의 배비를 2021년까지 완료하려고 하는 2020년까지 이지스 구축함 4척을 추가로 입하하는 조선동해에서 활동하는 이지스구축함의 수를 현재의 4척에서 8척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다. 지상에 배치되어 있는 17개의 《페트리오트》 운용부대도 28개로 증강하기로 하였다. 전투기에 탑재하여 지상목표뿐 아니라 해상의 함정들도 공격 할 수 있는 미국산 공중대지상 및 공중대해상 장거리순항미사일 《JASSM-ER》(사거리 300여km)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2018년도 예산안에

본사기자 김현옥

## 치욕스러운 《합의》의 리면이 드러났다

증해주고 있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사기와 협잡으로 우리 민족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한 일본의 죄악을 무마시킨 박근혜 보수 세력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항의로 들끓고 있으며 매국적인 《합의》의 전면 폐기를 요구해나서고 있다.

이밖에 성노예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과 관련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량족이 사전에 답변을 조율한 문제, 일본의 성노예지원금을 약 858만 US\$로 정할 때 피해자들의 의견을 받지 않은 문제 등이 폭로되었다.

그리고 남조선과 일본 사이에 끊을 끊지 못했던 일본군성노예문제가 《합의》를 보게 된 것이 다른 아닌 미국의 곤질긴 간섭과 부추김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이 다시금 드러났다.

사실들은 일본군성노예문제 《합의》 애초로 박근혜 보수 《정권》이 미국의 압력과 간접한 일본에 굴복하여 조작해낸 일대 사건이며 박근혜 보수당은 민족의 폭과 열이라고는 꼬물만족도 찾아볼 수 없는 천하역적의 무리라는 것을 다시금 뚜렷이 실

못한다. 《합의》를 변경하려고 한다면 양국관계는 관리불능이 될 것이다. 고 오히려 제3자에서 큰 소리치며 남조선당국에게 압을 가하고 있다.

박근혜당파 작당하여 뒤틀방에서 협잡문서를 조작하고도 그 내막이 탄로나자 사죄는 커녕 오히려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날뛰는 일본당국이야 말로 인륜도 법도도 모르는 파렴치하고 사악한 족속들이며 우리 민족의 불구대천의 원수임이 틀림 없다.

이번에 드러난 굴욕적인 일본군성노예문제 《합의》는 박근혜 보수 세력이 집권기간에 저지른 매국 반역 범죄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인민들이 박근혜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리는 것과 함께 역도가 추진한 매국반역정책들의 무효화와 전면 철폐를 요구하는 투쟁을 계속 줄기차게 벌려나가고 있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본사기자 리철민

## 통합 늘음으로 본격화되는 계파싸움

남조선의 《국민의 당》 내부에서 새해 정초부터 《바른정당》과 통합을 추진하는 통합찬성파와 통합반대파 사이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지난해 말 《국민의 당》은 《바른정당》과의 통합과 관련한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였다.

《국민의 당》의 당원 20%가 조금 넘는 성원들이 참가한 것으로 하여 전당원 투표는 저조하게 진행되었다. 이것은 《국민의 당》 당원 대부분이 보수정당인 《바른정당》과의 통합과 반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 당》 위원회 의장과 동부의장에게 전대개최 진행을 시키거나 찬성파의 원을 대행으로 임명해 전당대회를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안철수의 최측근인 물은 어느 한 기자회견에서 《반대파가 통합 움직임을 실력 행사로 막아설 경우에 대해 전당대회에선 현장 투표와 전자 투표를 병행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통합반대측은 통합반대파가 이를 거부하면서 새해 벽두부터 《국민의 당》의 계파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통합반대측은 통합반대하는 전당대회 의장은 물론 중립파인 정책위원장 등도 끌어당겨 전

당대회 개최만은 반드시 저지시키려 하고 있다. 지금 통합반대측은 1월 말 전당대회 개최를 추진하는 안철수계의 계획을 한차례만 지연시킬 수 있다면 그 시간동안 대표당원 1만여 명 중 3분의 1 이상의 수표를 받아 전당대회 자체를 백지화 시킬 확률이 있다.

찬성파의 한 의원이 2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전당대회 개최》는 당무위원회 결정사항이고 전당대회 의장은 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이를 행하지 않으면 부의장이나 대행에게 전당대회 개최를 시키면 되는 것으로 당규약을 해석하는 것이 맞다.

고 주장했다. 통합반대파인 전당대회 의장이 전당대회 개최를 거부하더라도 중립파인 정책위원회 의장과 동부의장에게 전대개최 진행을 시키거나 찬성파의 원을 대행으로 임명해 전당대회를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안철수의 최측근인 물은 어느 한 기자회견에서 《반대파가 통합 움직임을 실력 행사로 막아설 경우에 대해 전당대회에선 현장 투표와 전자 투표를 병행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통합반대측은 통합반대하는 전당대회 의장은 물론 중립파인 정책위원장 등도 끌어당겨 전

본사기자 김응철



인공조명의 혁사는 인류가 불을 발견한 때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은 부시들로 불을 일구어 밤을 밝혔다. 당시의 조명은 단순한 빛으로 어떤 물체를 비춰보는데 불과하였다.

인공광원으로 처음에 쓰인 것은 우등불, 헤불 등이였으며 19세기 말까지는 여러 가지 물질(광솔, 기름, 양초, 석유 등)을 태울 때 나오는 빛을 광원으로 이용하였다. 이후 인류는 에디슨의 발명으로 백열등을 이용하게 된다.

21세기 인류의 광원은 레드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레드등은 전압을 가했을 때 빛을 내는 반도체소자를 이용한 조명기구다.

레드등은 콤팩트등이나 형광등에 비해 빛효률이 2배 이상이

## 인민들에게 더 밝은 불빛을 안겨주시려고 — 삼천리조명기구공장을 찾아서 —

며 사용수명도 10배 이상에 달 할뿐 아니라 전압, 주파수파동에 따라 빛세기가 변하지 않는 우점을 가지고 있다.

공화국에서도 높은 품질을 담보하는 각종 형태의 레드등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다. 삼천리조명기구공장은 공화국에서 레드등생산을 처음으로 시작한 공장이다.

이 공장에서의 레드등생산은 인민생활향상에 언제나 마음씨오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세심한 보살피심을 떠나 생활수수료를 주겠다고 막대한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주체 99(2010)년 1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공장 기술자들에게 품소 레드등을 내려보내주시면서 레드등생산의 방향을 가르쳐주시었다.

인민들에게 보다 밝은 불빛을 안겨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나갈 일념밑에 이 공장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레드등생산공정에 대한 설계로부터 시작하여 프로그램작성과 생산공법 확립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갔다.

기술방조를 주겠다고 막대한 자금을 요구한 외국의 한 회사

에서는 자기들의 도움이 없이 이 모든것을 자체로 하자면 6년이 지나도 못한다고 하였지만 공장에서는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단 6개월만에 우리식의 질 좋은 레드등들을 내놓았다.

몇 해 전 이 공장을 찾아 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오늘 공장에 오니 하루빨리 레드등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 하시려고 그토록 마음쓰시던 장군님에 대한 생각이 더욱 깊어진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에서 만든 레드등을 보아주시면서 장군님

의 크나큰 은정과 세심한 지도 속에 공장이 짧은 기간에 최첨단기술이 도입된 레드등생산 공정을 새롭게 꾸려놓을수 있게 되었다고, 레드등생산은 이 공장에서 첫시작을 멘션이라고 만족해하시였으며 질좋은 레드

등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줄데 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오늘 삼천리조명기구공장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아래 강력한 기술력량과 현대적인 설비들을 갖추고 각종 레드등을 생산하는 륙색에 네르기제품생산기지로

자랑될지고있다.

제품제작으로부터 조립완성에 이르기까지 현대적이고 지능화된 설비들로 꾸려진 생산공정들에서는 각종 레드제품들이 생산되고있다.

여기서 생산된 각종 레드등들은 김일성종합대학 3호교사와 려명거리의 살림집들, 평양화장품공장, 류원신발공장을 비롯한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과 학교, 주택, 거리 등의 조명으로 리용되고있다.

오늘 삼천리조명기구공장 일군들과 기술자들, 종업원들은 인민들에게 더 밝은 불빛을 안겨주시려 그토록 마음쓰신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을 길이 전해갈 일념밑에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글 : 본사기자 김춘경  
사진 : 본사기자 동장현

품질이  
뛰여난  
갓가지  
레드  
제품들

제품전시장이라  
기보다 하나의 예술박물관을 방불케 하는 이곳에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각종 레드제품들이 조형예술적으로 전시되어 있다.

《조명에서 세계패권을》, 《자강력제일주의》, 《최첨단돌파》라는 구호가 한눈에 안겨오는 제품전시장은 자기 힘을 믿고 기적을 창조해나가려는 이 공장 종업원들의 정신세계를 말해주고 있다.

삼천리조명기구공장의 제품전시장에 들어서면 누구나 감탄을 금치 못해 한다.

제품전시장이라

기보다 하나의 예술박물관을 방불케 하는 이곳에는

제품전시장이라

사람들속에서 수요가 높은 레드등은 백열등이나 콤팩트등에 비해 수명이 오래고 교류전압 80~260V에서 밝기변화가 없으며 유해물질이 없는 것으로 하여 인체에 해를 주지 않을뿐 아니라 환경오염이 없는 우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레드등은 자외선복사가 없으므로 방안에 놓은 가구들의 탈색이 거의 없다.

이곳 제품전시장에는 실내조명에 쓰이는 갖가지 종류의 레드등들도 전시되어 있다. 여기에는 가정에서 많이 쓰이는 실내조명레드등들과 벽장식레드등, 만화영화에서 나오는 동물들을 형상한 유화등, 여성들을 위한 거울등들이 아름다운 색과 모양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실로 삼천리조명기구공장의 제품전시장은 최첨단을 향해 나아가는 공화국의 조명산업발전면모를 한눈에 알수 있게 하는 축도와도 같다.

## 첨단을 돌파하여 세계를 앞서나가겠다!

— 박성룡 삼천리조명기구공장 지배인파의 대담 —

기자: 공장을 돌아보니 일군들부터 시작하여 기술자들과 종업원들이 하루빨리 조명산업분야에서 첨단을 돌파하려는 열의가 대단히 높은것이 알린다.

박성룡: 우리 공장은 일군들부터 전문지식을 가진 한다하는 기술자들이다. 그뿐 아니라 경제실무사업을 하면서도 부단히 새기술학습을 하고 있으며 해마다 한가지 이상의 창의고안을 하고 있다.

지식경제시대인 오늘날 현대과학기술을 모르고서는 한결음도 전진할수 없다. 때문에 지배인인 나부터가 대학에서 배운 지식에 만족하지 않고 첨단과학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몇해전에 공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기사장도 30대의 전도 유망한 학위소유자이다.

일군들부터가 기술에 높고 실무가 높으니 기술자들과 종업원들도 그에 따라서기 위해 스스로 분발하고 있다.

기자: 공장에 설치된 태양빛을 따라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태양빛전지판들이 불만 하던데 공장에서 자체로 개발한것인가?

박성룡: 그렇다. 우리 공장 기술자들이 개발도입한 병렬형태양빛추종발전소이다.

이 발전소는 생산한 전기를 국가전력계통에 넣고 필요한 시간에 받아쓰는 발전소이다.

우리는 태양빛전지판의 추종장치와 요소들의 설계를 최량화함으로써 정식에 비해 발전량을 근 2배로 높이였으며 동시에 자체에 네르기소비량을 수입산에 비해 30%정도 줄였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압과 주파수의 변동에 관계없이 태양빛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국가전력계통에 넣을수 있는 미끄럼조종에 의한 계통전압과형추종방식을 연구개발하였다.

지난해 10월 수십kW 능력의 병렬형태양빛추종발전소에 대한 시험운영을 진행해본 결과 독립형발전소보다 초기투자는 1/2정도, 운영비용은 1/20정도로 줄일수 있다는것이 확증되었다. 많은 단위들에서 우리의 경험을 배우러 찾아오고 있다.

기자: 공장에서 새 제품개발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박성룡: 우리 공장에는 레드제품의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맡아하는 조명기술연구소가 있다. 이곳 연구소에서는 새 제품개발 및 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연구하여 이룩한 연구성과

들을 제때에 생산에 도입하고 있다.

우리 공장에서는 기술자들만이 아니라 일군들과 생산자들을 누구나 새

기술창안사업에 떨쳐나서고 있으며 그중 우수한 창작은 전국과학기술축전에서 매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기자: 최근에는 어떤 새제품을 개발하였는가?

박성룡: 지난해 우리 기술자들과 노동자들은 전시품들의 변탈색현상을 줄이는 새로운 레드등을 개발하여 내놓았다. 그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았지만 우리는 모든것을 창조적으로 풀어나갈 만만한 배심을 안고 연구사업을 심화시켜나갔다.

그 과정에 밝기가 센 램백색레드등이 일반레드등보다 변탈색현상을 심하게 일으키며 변탈색현상을 일으키는 기본인자인 푸른색빛량이 레드등의 밝기와 빛색갈에 따라 변화된다는것을 조사확증하였다.

기자: 이 공장 제품들이 사용자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는것은 새기술을 적극 도입한것과 함께 경영전략을 잘 짜고하는데 있지 않는가?

박성룡: 우리 공장에서는 제품개발과 생산, 판매를 일체화하고 있다.

우리 공장에서는 기술봉사를 해주어 구매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여러가지 건축물들과 조각상, 대형 그림조명 등 각이한 조건과 환경에 따라 합리적인 레드등을 선택하고 조명위치와 각도를 선정하는것을 비롯하여 최량

우리 공장에서는 기술봉사를 해주어 구매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여러가지 건축물들과 조각상, 대형 그림조명 등 각이한 조건과 환경에 따라 합리적인 레드등을 선택하고 조명위치와 각도를 선정하는것을 비롯하여 최량

우리 공장에서는 기술봉사를 해주어 구매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여러가지 건축물들과 조각상, 대형 그림조명 등 각이한 조건과 환경에 따라 합리적인 레드등을 선택하고 조명위치와 각도를 선정하는것을 비롯하여 최량

우리 공장에서는 기술봉사를 해주어 구매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여러가지 건축물들과 조각상, 대형 그림조명 등 각이한 조건과 환경에 따라 합리적인 레드등을 선택하고 조명위치와 각도를 선정하는것을 비롯하여 최량

우리 공장에서는 기술봉사를 해주어 구매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여러가지 건축물들과 조각상, 대형 그림조명 등 각이한 조건과 환경에 따라 합리적인 레드등을 선택하고 조명위치와 각도를 선정하는것을 비롯하여 최량

우리 공장에서는 기술봉사를 해주어 구매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여러가지 건축물들과 조각상, 대형 그림조명 등 각이한 조건과 환경에 따라 합리적인 레드등을 선택하고 조명위치와 각도를 선정하는것을 비롯하여 최량

우리 공장에서는 기술봉사를 해주어 구매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여러가지 건축물들과 조각상, 대형 그림조명 등 각이한 조건과 환경에 따라 합리적인 레드등을 선택하고 조명위치와 각도를 선정하는것을 비롯하여 최량

우리 공장에서는 기술봉사를 해주어 구매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여러가지 건축물들과 조각상, 대형 그림조명 등 각이한 조건과 환경에 따라 합리적인 레드등을 선택하고 조명위치와 각도를 선정하는것을 비롯하여 최량

우리 공장에서는 기술봉사를 해주어 구매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여러가지 건축물들과 조각상, 대형 그림조명 등 각이한 조건과 환경에 따라 합리적인 레드등을 선택하고 조명위치와 각도를 선정하는것을 비롯하여 최량

우리 공장에서는 기술봉사를 해주어 구매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여러가지 건축물들과 조각상, 대형 그림조명 등 각이한 조건과 환경에 따라 합리적인 레드등을 선택하고 조명위치와 각도를 선정하는것을 비롯하여 최량

제품들

제품들

제품들

제품들

제품들



